

새해
축복

난을 피하는 좋은 처방 믿으면 영험하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 한 마디 진언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 (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 ‘구자 진언’이 현재 민간에서 광범히 유전되고 있으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부지기수 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한마디 아름다운 선언 (善言)은 사람의 양지를 불러 일으키고 사람더러 선을 향하게 하고, 사람의 근본을 되찾게 하는데 바로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의 양지를 열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다.

파룬궁수련생들은 20여년간 진상을 알려 이 한마디 진언을 민중들에게 광범히 전해 선량으로 회귀한 사람들로 하여금 곤난에서 해탈되게 하고, 위험을 피하게 한 진실한 사례가 수도룩하다. 혜택을 본 사람들은 모두 이 진언을 인생 중에서 난을 피할수 있는 좋은 처방으로 삼는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흉악한 대역병이 변이 병독으로 다시 되돌아 옴에 직면해서 사람들 면전에 걸린 긴박한 일념은: 이어서 오는 역병이 얼



마나 큰 규모로 변화 할 것인가? 만약 앞으로 진정으로 고금 예언에서 묘사한 것처럼 참렬하다면 스스로 행운스럽게 난을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당신과 가족들을 위해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성심껏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를 넘하면 행운이 동반하여 불광이 비추고, 마음속에 영원히 ‘찌싼런 (真善忍)’을 간직하면 재난과 역병은 당신을 비켜 갈 것입니다.

감은: ‘구자 진언’은 전염병을 대항해 부동한 민족이 혜택을 받다

음력설을 즈음해 사람들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 맞이를 즐겁게 경축하면서 감은하고 복을 기대한다.

일년래 무한 폐렴이 전세계에 창궐해 이미 1억 명이 감염됐으며 20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추운 겨울인 현재 여러나라에서 더욱 심각한 변이 병독 역병이 전해지면서 역병으로 하여금 설성가상이 되게 했다. 더욱 불안해진 사람들은 역병치료는 쉽지않고 좋은 처방을 얻기 어렵다고 한탄한다.

작년 9월 17일, 밍후이왕에는 전 스위스 노바르티스사 중국 본부와 스위스 본부 고급 의학 전문가 컨설턴트 전염병 의학박

사 동위홍 (董宇紅) 과 미국 전 육군 미생물 연구원, 월트 리드 육군연구소 병독계 실험실 주임 린샤오쉬 (林晓旭) 박사 두사람이 함께 제작한 <코로나 병독 백신 연발의 곤경과 출로에 관한 사고>란 논문은 6개국, 6개 인종, 36개 신종코로나 (무한 폐렴) 감염자를 분석했는데 병원의 치료를 받지못했거나 혹은 병원치료에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성심껏 ‘구자 진언’인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 (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넘한 후 병세가 신속히 호전되거나 회복된 임상 효과를 얻었다. 동, 린 두명 의학전문가는 “사

람들이 성심껏 ‘구자 진언’을 넘할 때 우주의 강대한 에너지와 공진이 생기므로써 면역력이 강화되어 자신 신체가 병독의 감염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중문이 속달하지 않은 각 민족 인사들도 성심껏 ‘구자 진언’을 넘해 똑같이 신기한 효과를 전시했다.”고 했다.

레 1, 한쌍의 무한의 의사 부부는 병독에 감염된 후 (아내는 중증 입원환자) 외조카가 알려준대로 성심껏 ‘구자 진언’을 넘했고, 또 동영상에 따라 파룬궁 제 1장 공법을 배워 연마하자 며칠 사이에 완전히 회복됐다. 그의 외삼촌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며 말했다: “나는 다 (2면에 계속)

사진 뉴스

역병 속에서 대만 파룬궁수련생은 집체 연공하다



2020년 1월 16일 주말 오후, 일부분 대만 파룬궁 수련생들은 태북 자유 광장에서 제 5 장 공법을 연시했다. 역병중의 태북은 평소처럼 붐비는 여행객은 없었으나 여전히 중정 기념당의 자유광장으로 참관하러 오는 일부분 외국 여행객이 있었다. 그들은 파룬궁수련생들의 집체연공의 상서로운 장면을 보고 분분히 핸드폰을 꺼내들고 사진을 찍었다.

■ 박해 진상 ■

설전 중공은 파룬궁수련생 1216 명 납치, 소란하다

[명후이왕] 중국에서는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집집마다 설음식을 마련해 놓고 친인들이 돌아와 함께 설을 쇠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한무리 ‘진선인(真、善、忍)’보편 가치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파룬궁수련생과 친인들은 오히려 중공에 의해 납치, 소란, 가택수색, 불법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

파룬궁수련생들은 대선대인의 마음을 품고 역병중에서 중공의 박해 받을 위험을 무릎쓰고, 중국인에게 명을 구하는 좋은 방법을 전한다: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하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

法好), 찌싼런하오(真善忍好)’를 성심껏 넘하라고 알린 것 때문에 중공의 각종 박해를 받았다. 명후이왕 정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에 또 1216명 파룬궁수련생이 납치와 소란을 받았고, 36명을 감옥의 세뇌반에 보내고, 194명은 불법 징역형 선고를 받고, 18명은 박해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으며, 7명은 박해로 사망했다. 169명은 불법으로 가택수색 당하고, 27명은 양로금, 월급을 갈취 당했다.

94명의 65세 이상의 노년 파룬궁수련생이 납치, 소란 받았으며, 박해는 중국 대륙 29개성, 자치주와 직할시의 155개 성시에 분포됐다.

연변 안도현 파룬궁수련생 주야센(朱亞先)은 퇴직금을 갈취당하다

[명후이왕] 안도현 파룬궁수련생 주야센은 2014년 _2019년간 불법 징역형을 받고 감금당한 기간에 이미 받은 퇴직금을 갈취 당했다. 그리고 2020년 11월부터 시작해 퇴직금을 정지 당해 현재 주야센은 생활래원이 없다.

(1면의 계속)시 살아 났습니다. 정말로 너무 신기합니다. 리대사님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레 2, 미국 뉴욕의 롱아일랜드의 보석상 가드(Osnot Gad)는 확진 후 중증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을 때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했다. 그녀가 한 글자 한 글자씩 ‘구자 진언’을 넘했을 때 “폐가

열렸고 공기가 폐로 흘러들어와 숨을 더 길고 깊게 쉴 수 있었다”면서 “정말로 이 진언은 제대로 숨을 쉬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녀는 천천히 한 글자씩 ‘9자 진언’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사흘 만에 마침내 정상인처럼 호흡이 순조로워졌다.

파룬궁은 불(佛)법정도의 고덕대법이다. “불법무변(佛法無

邊), 심성즉령(心誠則靈)”란 말이 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넘하면 자연적으로 신불의 보호를 받는다. 생사 존망의 관건 시각에 세인들이 만약 고정된 관념을 내려놓고, 성심껏 ‘9자 진언’을 넘하면, 한푼의 돈도 쓰지 않고, 역시 바빠 뛰어다니며 수고하지 않아도 평안하게 역병을 넘길 수 있다.

천안문은 “가장 큰 촬영막”이다

2001년 1월 23일, 설날 그믐날 천안문광장에서 ‘분신자살’의 불길이 타오르자 중공은 황당하게도 파룬궁 수련생들의 소행이라고 했다. 또 CCTV ‘초점방담’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분신자살’ 영상은 허점투성이라 어떤 사람들은 TV 화면만 보고도 조작 단서를 찾아냈다.



5백도 고온에도 편히 앉아 있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다 알다시피 휘발유에 불이 붙으면 온도가 5백도 이상 올라간다. 5백도 이상의 고온이 아니라 설령 100도의 끓는 물에 손을 넣어도 ‘꿈쩍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왕진동(王進東)은 전신에 화상을 입었음에도 마치 태산처럼 꿈쩍없이 앉아 있는데 누가 이를 믿을 수 있는가?

어떤 시청자는 이렇게 말했다: “요리할 때 뜨거운 기름이 팔에 살짝 닿기만 해도 모두 펄쩍 뛰고 난리가 난다. 저 ‘분신자살’이 정말이라면 왕진동은 벌써 천안문광장에서 이리저리 뛰면서 난리가 났어야 한다. 영화로 찍어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가!”

5백도 고온에도 타지 않는 플라스틱 병

‘분신자살’을 한 왕진동의 옷은 큰 불에 다 ‘타지만’ 두 다리 사이에 있던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음료수 병은 마치 새 상품처럼 깨끗했다. 또 가장 불에 타기 쉬운 그의 머리카락도 완벽했고 손상이 없었다.

어떤 사람이 실험해 봤는데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병에 불을 붙이면 5초면 찌그러지기 시작하고, 7초면 수축되어 변형이 되며 10초면 하나의 작은 덩어리로 변한다. 설마 왕진동의 두 다

리 사이에 있던 플라스틱병은 다른 특수한 재료로 만든 것이란 말인가?

‘추가촬영’을 실토한 기자

왕진동의 ‘사기분신’이 탄로나자 심지어 ‘분신자살’ 사건 담당자이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을 취재했던 여기자 리위창(李玉強) 역시 어쩔 수 없이 사기극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2년 초, 하북성 ‘법제교육센터’에서 리위창이 불법으로 이곳에 감금된 파룬궁 수련생들과 소위 ‘좌담회’를 가졌다. 당시 한 파룬궁 수련생이 “왕진동 다리 사이의 플라스틱병은 왜 불에 타지 않는가?”라고 묻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실제 상황을 토로했다. “음료수병은 그들이 넣어 놓은 것이고 이 장면은 나중에 추가로 촬영한 겁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탄로 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찍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해명했다.

미리 준비된 소방장비

2001년 2월 16일, ‘북경만보(北京晚報)’ 보도에 따르면 ‘분신자살’자 한 사람의 몸에 붙은 불을 3~4명의 경찰이 꺾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5명의 ‘분신자살’자 몸에 붙은 불을 끄는데 몇 개의 소화기가 있어야 하는가? 소화기를 메고 순찰하는 경찰을 누가 본적이 있는가?

호주의 ‘디 에이지(The Age)’

신문은 CCTV ‘분신자살’ 영상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경찰 측이 미리 사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90초 안에 대량의 소방장비가 화면에 나타날 수 있는가? 라고 했다.

확실한 것은 소화기와 소화장비가 현장에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2012년 내막을 아는 한 료녕 사람은 “내 친구 하나가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장경찰 소대장이었어요. 그 친구가 당시 자신도 그 사건 ‘예행연’에 참여했고 소화기를 들고 금수교 아래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으며 얼어 죽는 줄 알았다고 내게 말했어요.”라고 했다.

돌발사건임에도 안정적이고 깨끗한 화면

‘분신자살’은 돌발적인 사건임에도 CCTV 기자가 찍은 화면은 오히려 아주 안정적이고 깨끗하다. 아울러 카메라 앵글이 사건 전개에 따라 이동하는데 원경은 물론이고 근경과 심지어 클로즈업 화면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설마 이것이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란 말인가?

이상의 각종 허점에서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은 중공 강택민 집단이 연출한 사기극임을 충분히 보여준다. 마치 연에게 인사의 말처럼 “천안문은 ‘가장 큰 촬영막’이다.”

내몽골 기율검사위원회 공무원 : 나는 왜 파룬궁을 인정하는가 ?

[밍후이왕] 내몽골 자치구 모시 기율 검사 위원회 공무원 조씨 (가명) 는 2021 년 원단에 해외 파룬궁 수련생의 걸어온 진상 전화를 받은 후 매우 감동했다. “새해에 복음을 받은 것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입니다. 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왜 파룬궁을 인정하는가?”

수련생이 조씨에게 파룬궁이 전세계에 널리 전해진 성황을 소개할 때 그는 말했다: “나는 파룬궁을 매우 인정합니다. 내가 왜 파룬궁을 인정하는지 압니까? 나는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전문가라는 명의로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곳에서 고찰과 견학할 때 어디에서든 파룬궁을 보았습니다. 나는 파룬궁이 모두 선량한 것을 창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말한 진선인 (真善忍) 이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이 보편적인 가치관은 인류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매우 인정합니다.”

“선생은 진짜 똑똑히 알고 계시네요.”라고 하자 조씨는 말했

다: “나도 한때는 공산당의 비방 선전을 믿고, 파룬궁이 좋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보았고, 국내에서도 나는 줄곧 ‘돌파프로그램’(翻牆软件)으로 담장을 넘어 해외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스스로 많은 진실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공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스스로 진실한 물건을 찾아 봐야 합니다.”

수련생이 “선생님은 진짜 혜근 (慧根) 이 있으십니다.”라고 하자 그는 대답했다: “만약 내가 혜근이 없었다면 당신도 오늘 이 전화로 저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2021 년 1 월 1 일, 원단이지요. 나의 가장 행운스러운 순간입니다.”

“저는 공산당의 해적선을 탔고 그러나 지금 각성했습니다”

수련생이 그에게 ‘삼퇴’(중공의 당, 단, 대조직에서 탈출)의 의미를 말할때 그는 말했다: “나는 ‘삼퇴’했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전제주의와 후안무치함, 비인간적인

통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머니는 해외에 있기에 느끼지 못할 겁니다. 공산당은 파룬궁을 사교라고 욕하는데 나는 스스로 조금씩 사고해 보고 한가지씩 분명히 본 후 공산당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이고 파룬궁은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당원일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 시스템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며 공산당의 해적선을 탔지만 나는 지금 각성하여 마음이 환하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통화는 나에게 매우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 말했다: “나는 지금 당원은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에 갈 기회가 있기를 희망하며 이번생에 자유세계에 가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돼지굴속의 돼지마냥 살고 싶지 않습니다.”

수련생이 파룬따파 서적 ‘전법륜 (轉法輪)’을 그의 메일에 보낸 후 그는 격동하며 말했다: “새해에 복음을 받은 것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입니다. 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파룬따파하오’를 넘해 무한 노인이 구원되다

[밍후이왕] 무한에 사는 80 세 노인 이 씨는 2020 년 1 월, 무한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가 무한폐렴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는 이미 신부전증과 혼수상태에 빠졌고 전체 폐가 이미 하얗게 변했다.

친척이 상황을 알고, 그에게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 (真善忍好)’ 이 ‘구자 진언’을 넘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 빨리 넘하라고 알려줬다. 노인은 ‘구자 진언’을 넘해 7 일 만에 회복되어 퇴원했다.

최근 1 년간 이 병원에서는 퇴원한 모든 무한폐렴 환자들을 추적 검사했는데 73% 가 후유증이 있었다. 이 씨 노인도 호출을 받고 두 번이나 검사를 받았는데, 두 번의 신체검사 각 항목 지표는 모두 양호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신체가 건강했고, 식사도 잘하고, 잘 자고, 춤도

출 수 있었다. 정신상태가 매우 좋아 마치 병에 걸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옛말에 ‘인체 내에 정기가 존재하면 사기가 간섭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파룬따파는 불가의 고덕대법이기에 ‘구자 진언’을 외워 생긴 바른 에너지는 인류를 속수무책으로 만드는 바이러스 (병독) 을 완전히 퇴치할 수 있는데, 이 씨 할아버지가 바로 한 예였다.